

송가섭 KASUP SONG

송가섭(Kaseub Song)은 제품디자인을 기반으로 패션과 오브제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물의 가치가 생성되고 소멸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디자이너이다.

해체와 재구성을 단순한 조형 기법이 아닌 기존의 질서와 기준을 다시 바라보는 사고의 방식으로 활용한다. 그의 작업은 버려진 소재를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 이후의 사물이 다시 관계를 맺고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번 《Circle Back; 잇다. 입다.》에서는 판매되지 못한 의류를 통해 선택과 배제, 자유와 가치의 문제를 질문한다.

RECLAIM

모든 옷은 누군가에게 선택되기 위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순간, 옷은 재고가 되고 곧 버려질 대상으로 분류된다. 아직 기능도 형태도 남아 있지만, 시장의 판단은 그 존재의 가치를 먼저 끝내버린다. 이 작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

판매되지 못한 패딩과 스웨트셔츠, 니트는 절개되고 해체된 뒤 새로운 구조로 다시 연결된다. 기존의 소매와 실루엣은 익숙한 착용 방식에서 벗어나며, 노출된 봉제선과 불완전한 접합은 감춰야 할 결함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는 흔적으로 남는다. 해체는 파괴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역할에서 벗어나는 행위이며, 재구성은 잃어버린 가능성을 다시 선택하는 과정이다.

자유는 주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타인이 정한 기준과 역할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의미를 다시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선언이다. 프로테스트의 거친 시각 언어는 특정한 사건을 재현하기보다,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태도로 작동한다.

이 컬렉션은 버려진 옷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될 권리를 부여한다. 여기서 순환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반복이 아니라, 끝났다고 판단된 것이 새로운 관계와 정체성을 획득하며 다시 시작되는 움직임이다.

버려진 것은 옷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해버린 가능성이다.